

http://dx.doi.org/10.17703/JCCT.2018.4.3.27

JCCT 2018-5-4

조선 후기 庶民 女性作家的 詩文에 나타난  
현실인식과 지향의식  
- 金三宜堂과 姜靜一堂을 중심으로 -

**A Recognition on Reality and consciousness of orientation  
in the poetic literature of the Common female writers  
in the late of Joseon Dynasty  
- Focuse on the KimSamuidang and GangJeongildang -**

김도영\*

**Doyoung Kim\***

**요약** 본 연구는 조선 후기 몰락한 양반가의 서민 여성작가를 대표하는 구체적인 예로써 金三宜堂(1769~1823)과 姜靜一堂(1772~1832) 등 2인을 설정하여 이들의 詩文에 담긴 현실인식과 지향의식이라는 공통적 감성을 탐구하였다. 三宜堂은 가문의 부흥을 위해 남편의 과거 등과 뒷바라지에 헌신하면서 남편과 활발한 시문 교류를 통한 婦德을 실현하였으며, 조선 시대 여류작가로는 가장 많은 작품을 남겼다. 靜一堂은 조선 후기의 여성 性理學者이자 시인이다. 그녀 역시 평생을 샅바느질과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기울어가는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남편의 訓育者로서의 자기 인식을 확고히 하고 학문을 독려하며 적극 지원하였다. 이들은 勸勉의 知友로서의 부부평등 의식을 갖고 立身揚名을 통한 가문 선양을 지향하였다. 또한 田園의 安貧樂道를 추구한 주체적 여성들이었다.

**주요어** : 김삼의당, 강정일당, 조선 후기, 서민 여성작가, 부부평등, 주체적 여성

**Abstract** The study chose two people, KimSamuidang(1769~1823) and GangJeongildang(1772~1832), as concrete examples representing the common female writers in the late of the Joseon Dynasty. And study the recognition on reality and consciousness of orientation in the poetic literature. KimSamuidang is commit to the revival of his family to pass the test. And exchange with husband through active study literature and practice wife law. She left the largest number of works as a female writer during the Joseon Dynasty. GangJeongildang is a Confucian scholar and poet of the late Joseon Dynasty. She also spent her whole life sewing and suffering from disease, trying to create a dying family. Teaching her husband's education, she established self-recognition, encouraged and supported learning. They had a equality sense of marriage couple as academic friends, encouraging each other to study, and by passing the test, they tried to raise their families. Also, although poor in rural life, the mind was the Independent women who pursued comfortable life.

**Key words** : KimSamuidang, GangJeongildang, the late of Joseon Dynasty, the Common female writers, Equality of marriage couple, Independent woman

\*정회원, 예원예술대학교 교양학부  
접수일: 2018년 5월 7일, 수정완료일: 2018년 6월 8일  
게재확정일: 2018년 7월 12일

Received: May 7, 2018 / Revised: June 8, 2018  
Accepted: July 12, 2018  
\*Corresponding Author: kdy3019@naver.com  
Dept. of the faculty of liberal arts, Yewon Arts Univ, Korea

## I. 서론

조선 후기(약 1700~1850년)는 서구 문물의 대량 유입과 性理學의 권위가 급격하게 쇠락하면서 實學思想이 평민층까지 유입되어 문학적 부흥이 싹트던 시기였다. 남녀관계에 있어서 三從之道에 입각한 남성의 종속적인 존재로서의 여성에서 탈피하여 주체적인 의식을 가진 여성으로서의 자각 현상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특히 몰락한 사대부 출신가의 서민여성 작가들은 궁벽한 향촌에서 빈궁한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윤리규범적 가치관과 婦道를 지키면서도 남성 주체와의 대등성을 통한 주체인식을 갖고, 한편으로는 賢母良妻의 헌신적인 삶에 충실한 가운데 강한 자아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문활동을 펼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서민 여성작가의 대표적인 인물로 金三宜堂(1769~1823)과 姜靜一堂(1772~1832)을 주요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金三宜堂과 姜靜一堂의 신분 자체는 전적으로 평민출신이라고 볼 수 없다. 이들은 사대부 가문 출신이고 시택도 양반의 신분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몰락한 양반 가문으로서 삶 자체는 서민층과 완전히 부합되는 삶을 영위했기 때문에 서민층 여성에 함유시킬 수 있다고 본다. 두 사람은 비록 학문적 성취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으나 사대부출신으로 태어나 서민 여성작가로서의 빈곤함 속에서도 詩文에 전념하며 주체적 삶을 살다 간 두 사람의 공통분모를 발견하였다. 그동안 조선조 여류 작가들에 대한 개별적인 다양한 분석적 논문과 저술이 발간되었다. 하지만 조선 후기 서민 여성작가들을 묶어서 이들의 시문에 나타난 심미와 가치를 고찰하는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연구가 미진했던 조선 후기 서민 여성작가들의 독특한 생애와 학문의 정립을 통한 그들의 현실인식과 명확하고도 주체적인 시문에 드러난 지향의식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 II. 조선 후기 庶民 女性作家의 현실인식

### 1. 金三宜堂 : 詩文 교류를 통한 婦德 실현

金三宜堂은 1769년(영조 45년) 10월 13일 전북 남원의 棲鳳坊(현재 蛟龍山의 서남 기슭)에서 태어나 1823년(순조 23년) 5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여류시인이

다. 燕山君代의 학자인 濯纓 金駟孫(1464~1498) 후손인 金仁赫의 딸로서, 몰락한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나 여성의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당시 관습에 따라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현재 당호만 전해져 오고 있다. 三宜堂은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독서와 학습과정을 통하여 인생의 근본 원리와 윤리에 대해 성찰하고 확고한 정신세계를 확립하였다. 그녀가 평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철저히 婦道를 지킨 일이나, 항상 생활에 쫓기는 가운데서도 붓을 놓지 않고 詩作에 혼신을 기울인 점도 실상은 가정교육의 영향 때문으로 보여진다. 三宜堂은 여성으로서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三宜堂金夫人遺稿』 문집과 여기에 99편(총 253수)의 방대한 양의 시와 22편의 문장을 남겼다. 그녀의 遺稿集은 사후 100여년이 지난 193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간행되었다.

그녀는 18세(1786년)에 같은 마을의 生年月日이 같은 河篋과 결혼을 했다. 河篋 역시 영락한 양반가의 후손으로 양가는 학문을 숭상하는 비슷한 가풍을 지닌 집안이었다. 혼례식을 치른 날, 시택의 가풍을 흠모하는 마음과 남편을 존경하겠다는 다짐이 신혼부부의 和答 詩에 담겨져 있다.

配匹之際生民始  
君子所以造瑞此  
必敬必順惟婦道  
終身不可違夫子

(李月英 譯註, 『삼의당김부인유고』, 卷之一, 「附夫子詩」, “남녀가 배필이 되는 것은 백성의 비릇이요, 군자께서 하시는 일도 여기에서 시작되노니, 공경하고 순종함이 아내의 도리이오니, 이 몸은 평생토록 당신 뜻 어기지 아니 하리오”, 신아출판사, 2004, pp. 27~28 참조.)

萬福의 근원이 새색시의 처신에 따라 달려 있음을 『詩經』 周南의 ‘桃夭篇’을 인용해서 강조한 새신랑의 시에 대해, 三宜堂은 오로지 공경과 순종의 미덕을 최대한 발휘하여 남편을 잘 섬기겠노라고 다짐하는 내용을 담아 화답하였다. 이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위하는 부부의 금슬은 매우 좋았으며, 湛樂堂은 집 벽에 서화를 가득히 붙이고 뜰에는 꽃을 심고, 그녀에게 ‘三宜堂’이라는 당호를 직접 지어 붙였다. 또한, 가문의 재건을 위해 힘든 가정경제 속에서도 십여 년간 서울로 유학

간 남편에 대한 자신의 연모를 철저히 억제하고 오히려 시문을 통해 강하게 勸勉하였다. ‘女必從夫’를 강조하던 당시 조선 사회에서 三宜堂과 같이 남성을 인도하는 여성을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여성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登科 만이 오로지 가문을 일으키고, 부모에 대한 최고의 효도라 여기고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하였다.

## 2. 姜靜一堂 : 남성 訓育者로서의 자기 인식

姜靜一堂은 1772(영조 48년) ~1832) 충북 제천에서 父 姜在洙와 母 權瑞應의 딸로 태어났다. 父系는 세조 때의 공신이며 의정부 좌찬성을 지낸 문장가 姜希孟의 10대손이며, 조부와 아버지는 모두 단명하여 벼슬에 나가지 못하고 가문이 영락하게 되었다. 부계와 모계 모두 조선후기의 명문가이었으며, 정치적으로는 정통 老論 계열에 속하였다. 靜一堂은 父系 쪽으로는 詩文의 전통을 이어받았고, 母系 쪽으로는 畿湖學派 性理學의 전통을 받았다. 그녀는 20세 때 충주의 선비 尹光演과 결혼하였는데, 신랑의 나이 14세였다. 10대조 尹坤은 이조판서를 지냈으나 증조부 이후에는 벼슬도 못하고 가세가 기울어 경제적으로는 매우 곤궁하였다. 그녀는 가난 때문에 3년 후에야 겨우 시집으로 갔다. 남편은 가난으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느라 학문에 소홀하였다. 결국 고향에서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여 과천으로 이거하였다가 후에 서울로 옮겨 남대문 밖의 藥峴(지금의 중림동)에 살게 되었다. 5남4녀의 자식을 낳았으나 제대로 키우지 못하여 후사가 없었다.

그녀가 27세부터 본격적으로 학문을 배운 이유는 남편의 학업이 지지부진하자 샅바느질을 하면서 더 깊은 학문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학업의 성취에 있어서 남편을 앞서 나갔다. 그녀는 남편을 당시 노론의 대학자였던 宋禰圭(1759~1838)의 문하에서 공부토록 이끈 주체적 여성이었다.

“凡書中聖賢謨訓, 俱是當行底道理, 既知其當行, 則行之可也. 而必有師友之資, 然後所行者不至於過差. 願夫子從師取友, 以自益焉.” (『靜一堂遺稿』, 「附錄」, <祭亡室孀人姜氏文 1>. “모든 글 가운데 성현의 말씀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입니다. 이미 행해야 할 것임을 알았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스승과 친구의 도움이 있는 연후에야 그 행하는 것이 어긋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낭군께서는 스승을 따르고 친구를 사귀어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등과하지 못하자, 결국 재야의 학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부부가 서로 학문을 권학하며 安貧樂道의 삶을 살게 된다. 尹光演에게 있어서 그녀는 학문을 권면하고 교유관계 및 인격 수양 등을 길라잡이 해 준 훈육자이자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靜一堂은 불행한 여성적 삶 속에서도 남편의 援助者로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운용해 나갔던 것이다. 尹光演은 아내의 시문을 잘 보관하였다가 그녀의 사후 4년이 지난 1836년에 『靜一堂遺稿』를 간행하였다.

## III. 조선 후기 庶民 女性作家의 지향의식

### 1. 勸勉的 知友로서의 夫婦平等 지향

三宜堂은 과거를 준비하는 남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는 내조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가장 충실하게 수행한 여류문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공부 중 가끔 방황하는 남편을 권면하고 책망하기도 하였다. 남편과 생이별한 약 십여 년간 남편과 주고받은 시에는 勸學을 읊은 내용이 많다. 공부의 한계를 느껴 상실의 모습을 보인 答략당의 書簡詩에 대해 삼의당의 답시는 서릿발같이 매섭고 준엄하다.

古人好讀澗投書

此意嘗陳送子初

機上吾絲未成匹

願君無復樂羊如

(李月英 譯註, 앞의 책, 卷之一, 「夫子入山讀書以詩寄之 妾和之」, “옛사람 글 읽기 좋아해 산골 물에 편지던졌으니, 이 뜻은 당신을 보내던 처음에 이미 말했지요. 베틀 위의 실 아직 베를 다 짜지 못했으니”, 신아출판사, 2004, p. 34.)

1句에서는 投書澗 고사를 인용하여 초심을 되새기게 하고, 3,4구에서는 樂羊子の 고사를 들었다. 樂羊子는 과거 공부를 떠난 지 1년 만에 공부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그의 아내는 짜고 있던 베를 자르며 학

문을 닦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베를 반쯤 짜다 잘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충고하자, 다시 학업에 전념하여 뜻을 이루었다는 고사이다. 고사를 인용하여 타향살이가 길어짐에 따라 남편의 흔들리는 마음을 우려하며 강한 어조로 책망하며 학문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하는 등 적극적으로도 주체적인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를 통해 삼의당이 부부간의 평등의식을 갖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과 남편에게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알 수 있다.

靜一堂의 시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주제는 덕과 학문을 강조하며 勸學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녀는 학업의 성취에 있어서 남편보다 앞서 있었기에 학업을 직접 지도하게 된다. 이는 부부평등 의식의 발현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新涼入郊，此正燈火可親之時也。望須接客應事，不得已之外，專意讀書焉。妾亦針線饋食之暇，中夜不帷之際，看字理會爲計矣。”(『靜一堂遺稿』，「附尺牘」，〈并上夫子 35〉。 “서늘한 바람이 부니, 이제 독서에 매진할 때입니다. 원하건대, 손님을 접대하고 일을 보거나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정신을 집중하여 독서를 하세요. 저 역시 바느질하고 음식 장만하는 틈틈히 짬을 내어 잠자리에 들 때까지는 독서를 하며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밥을 짓지 못한지가 사흘이 될 정도로 빈궁한 생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문의 텍스트에는 고난이나 좌절, 비참함이나 억울한 심정 등을 토로하고 있는 話者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이를 극복하고 남편에게 학문의 勉勵를 당부함과 동시에 자신의 끝없는 자기계발의 계획을 남편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이들 부부의 知友로서의 부부 평등의식을 지향한 것이며, 靜一堂이 道學者的 삶의 主體的 自覺者였음을 의미한다.

## 2. 立身揚名을 통한 家門 宣揚 지향

주체적인 의식을 가진 여성으로서의 자각 현상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한 조선 후기에서도 여전히 여성의 문학이나 학문적 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三宜堂과 靜一堂은 궁핍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몰락한 가문의 입지를 되찾고 가문의 부흥과 영달을 위해 일찍이 남편의 登科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였다. 규범적이고 순종적인 삶을 살았던 이들은 立身揚名만이 한미한 떨어진 가문의 재건이며, 부모에 대한 최고의 효도라고 여기고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성을 한시로 표현하였다.

三宜堂은 夫君의 立身이야말로 몰락한 가문의 부흥임과 더불어 부모에게 孝道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과거에 합격하도록 뒷바라지하고 있다. 그녀가 남편을 서울로 보낼 때 늘상 조언했던 말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더욱 정진하라는 당부였다.

“矧瞻堂上鶴髮，臨年尙無怡顏之慶，爲子之情，尤如何哉。妾主中饋，當奉菽水之供。願君子在外亟立厥身以圖顯親。”(李月英 譯註, 앞의 책, 卷之二, 「送夫子入京序」, “하물며 당상에 계시는 연로하신 부모님은 노년이신데도 아직 안색을 기쁘게 할 정사로움을 얻지 못하셨으니 자식된 자의 마음에는 더욱 어찌하시겠습니까. 저는 부모님께 음식을 주관하여 변변치 못한 음식이라도 받을것사오니, 당신은 밖에 있는 동안에 속히 입신하시어 부모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아출판사, 2004, p. 230.)

이처럼 절절한 심정으로 남편에게 좀 더 분발하도록 독려한 것은 실상 三宜堂의 효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또한 남편의 등과는 가문의 宣揚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분으로서 출중한 능력을 지녔어도 자신의 이상을 발휘할 수 없었던 폐쇄적인 남녀차별적 사회 분위기에서 자신의 욕망을 대리 충족시켜 주는 필수요소였던 것이다.

靜一堂의 여성적 삶은 가난과 질병, 그리고 9남매 자녀 모두의 죽음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고통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金順天은 이러한 상황에서 삶에 대한 성찰은 인고를 낳고, 인고 속에서 자신을 녹여줄 구원자가 필요했으며, 그것이 바로 詩 쓰기였으니 가혹한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시문에 담아냄으로써 超克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녀의 시는 모두가 배우는 자들이 경계해야 할 내용들로써, 자신의 심신수양을 위해 학문을 하는 다짐 등 자신을 위한 노력이 담겨져 있다.

靜一堂은 시를 통해 학문을 통한 지적인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꿈을 담아내고 있다. 스스로 학문에 힘써 후회됨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自勵」에서 남겼다.

休令好日月 젊은 날에는 무수한 시간들을  
 流浪斷送處 놀고 방랑하며 결코 허송하지 마라.  
 宜鑑不學者 의당 배우지 못한 자를 거울삼을 것이니.  
 枯落歎窮廬 늙고 쇠락하면 궁핍하며 탄식하리라.  
 (『靜一堂遺稿』, 「自勵」)

시의 전반부는 朱子의 「勸學詩」에서 젊은 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소중히 여겨 학문에 정진하라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靜一堂 또한 이를 경계한 시를 지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땅히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은 젊어 게으른 자는 늙어서 고락한 신세가 되어 궁핍한 집에서 힘들게 살며 후회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방탕한 마음을 경계하고, 학문의 정도를 산을 만들거나 우물을 파는 일처럼 오래도록 근면하게 하면 마침내 꿈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三宜堂과 靜一堂은 立身揚名의 원대한 뜻을 이루고 몰락한 가문을 재건하고 선양하기 위해 헌신한다는 확고한 지향의식을 갖고 행동화하였다.

### 3. 田園的 安貧樂道の 삶 지향

鎭安으로 이거한 이후에 三宜堂은 비교적 한가하고 빼어난 산수와 자연 속에서 지극히 목가적·서민적인 생활을 하며 그 속에서 한시의 소재를 삼아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田園詩를 주로 썼다. 晝耕夜讀하는 힘든 가운데에서도 서로 시문을 화답하는 詩友의 정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극히 평민적 삶인 농업생산 생활에 잘 적응해 간다.

日已午日煮 날 이미 정오라 햇볕 쬐는 듯하니  
 我輩汗滴土 내 등의 땀 등에 뚝뚝 떨어지네.  
 細討莨莠竟長畝 가라지 뽑아 긴 이랑 다 마치고  
 小姑大姑饗 작은 시누이 큰 시누이 잔치 여네.  
 麥黍甘羹滑 보리밥 달고 국 맛 좋으니  
 流匙矮粒任撐肚 밥 푸는 숟가락은 먹는 양에 맡기네.  
 鼓腹行且歌 배 두드리며 가다 또 노래하니  
 飽食在勤苦 포식은 몸과 마음 다해 애쓴 값이랴오.  
 (李月英 譯註, 앞의 책, 卷之一, 「夫子於山陽買田數頃, 勤

力稼穡, 妾作農謳數篇, 以歌之 8首 中 2」, 신아출판사, 2004, pp. 148~149 참조.)

이와 같이 三宜堂의 사상 전개나 흐름이 변화된 근본적인 원인을 金道瑩은 남편의 과거급제라는 목표를 세우고, 여기에 자신의 모든 인생 의미를 걸고 살았던 그녀의 삶의 방향이 남편의 등과라는 목표이자 숙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남편과 더불어 安分知足의 삶을 살게 되니, 드디어 자신을 옳아매었던 고통스러운 족쇄에서 풀려나면서 정신적 안위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고, 이에 그녀의 시적 정조가 변화하게 된 것으로 보았다. 비록 서민과 다름없는 가난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대체로 소박하고 인정스러움이 배어있는 田園詩 위주의 창작 활동을 하면서 말년의 安貧樂道の 삶을 영위한다.

靜一堂 역시 자연에 묻혀 달관의 경지에서 세상의 도를 읊었으며, 詩作의 세계도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녀는 가난을 선비의 분수로 여겼다. 자기 분수를 편안히 여기고 근본을 지켜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즐거울 수 있다고 여겼다. 진실로 바른 도가 아니라면 마음 속에 담아주지 말라고 남편에게 당부하였다.(靜一堂遺稿, 「不尺牘」, <并上夫子 32>, “貧者士之分也, 儉者物之本也. 苟非其道, 願勿掛念”)그러하기에 세속적 욕망을 초월하였고, 남편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 주어 安貧樂道の 길로 인도했다.

坦園幽且靜 탄원은 그윽하고 고요하니  
 端坐至人居 그 단정함이 선비가 살기에 좋다네.  
 獨探千古籍 홀로 천고의 서적을 탐독하며,  
 高臥數椽廬 작은 오두막에서 높이 누웠네.  
 (『靜一堂遺稿』, 「坦園」)

「坦園」은 靜一堂 나이 56세(1814년)에 지은 시로써 자신의 공간에 대한 自足之適의 심회를 형상화하였다. ‘幽’와 ‘靜’의 감성이 至人과 일체화된 逍遙遊의 心物合一된 경지이다. 자신의 공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녀의 詩 특징은 性理學이라는 일정한 틀 속에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 본연의 순수함과 우주근원으로서의 天理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연의 대상을 통해 내면의 깨달음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한걸음 나아가 자연의 대상물을 통해 우주

적 원리와 생명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였다.

三宜堂과 靜一堂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짓는 기쁨을 알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작품으로 형상화시켰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순응하며 살면서 그 안에서 소박한 행복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생활관을 보인다. 이는 이들이 정신적으로는 儒學者의 세계관을 지녔지만, 실생활은 서민의 삶을 살았던 것에서 연유한다고도 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여성’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도 기인한다. 이는 그 당시 다른 여성 작가와 변별되는 요인이다. 조선시대 여류시인들 중에는 교육도 받고 詩作도 할 정도로 정신적인 교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 살림을 담당하지는 않았기에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조선 후기 서민 여성작가를 대표하는 구체적인 예로서 金三宜堂과 姜靜一堂 등 2인을 설정하여 이들의 詩文에 담긴 현실인식과 지향의식이라는 공통적 감성을 탐구하였다. 三宜堂은 서민과도 같은 생활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악조건 속에서도 가슴 속에 담아놓은 깊은 정한과 사연들을 꾸준한 시문활동을 통해 정화·승화시켰다. 영락한 집안의 부흥을 위해 남편의 과거 등과 뒷바라지에 헌신한 그녀는 남편과 활발한 시문 교류를 통한 婦德을 실현하였으며, 여성으로서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三宜堂 金夫人遺稿』 문집과 여기에 99편(총253수)의 방대한 양의 시와 22편의 문장을 남겼다. 靜一堂은 조선 후기의 여성 儒學者이자 시인이다. 그녀 역시 기울어가는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남편의 訓育者로서의 자기 인식을 확고히 하고 학문을 독려하며 적극 지원하였다. 평생을 샅바느질을 하며 지독한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렸으나 詩作과 학문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여 여성 성리학자로서의 주체성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남편과 더불어 삶에서의 道의 실현을 궁극목표로 삼았으며, 『靜一堂遺稿』를 남겼다.

이들은 여성 억압적 사회구조임에도 굴하지 않고, 勸勉的 知友로서의 부부평등 의식을 갖고 立身揚名을 통한 가문 선양을 지향하였다. 또한 남편의 과거 등과 포기 후 田園的 安貧樂道를 추구하며 自足之適의 삶을 살

았다. 三宜堂의 시가 자연을 감정이나 사변적 현상 보다는 섬세한 필치와 사실적 묘사로 담박하게 진술한 점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靜一堂의 시는 사물에 대한 구체적 관찰보다는 도덕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다. 이들의 시문은 무엇보다 시대적·현실적 한계를 뛰어넘은 시의 식과 탁월한 문장으로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가 있다.

#### References

- [1] JeongildangGang(1836), "Jeongildangyugo"
- [2] Translate and annotate by LeeWolyoung(2004), "SamuidangKimbuinyugo", Sina publishing company.
- [3] Do young Kim(2016), "On confucionista recognize of Lifetime and Chinese poem of KimSamuidang", 『The Journal of Honam Area Studies』 Vol.59.
- [4] Duck Soo Kim(1990), "study on the poems of Kim, Samuida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a doctoral dissertation.
- [5] Soon Cheon Kim(2009), "Aspects of female intellectuals' subject recognition in latter period of Cho-Seon -with the view of femininity-",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a doctoral dissertation.